

5강 요한1서

사랑과 진리의 교회 공동체

거짓 가르침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 쓴 신학적 담론

편지 형식의 파격: 요한1서는 서신인가?

전형적인 편지 구조

발신자 (Sender)
수신자 (Recipient)
인사 (Greeting)
본문 (Body)
맺음말 (Closing)

요한1서의 구조

발신자
수신자
인사
본문: 신학적 담론 (Body: Theological Discourse)
맺음말

전통적 편지 양식의 부재

- 서문(1:1-4)과 결론부에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음.
- 고대 편지 형식을 철저히 갖춘 요한2서, 3서와 명확한 대조.

장르에 대한 학술적 논쟁

- 종교적 논문 (Traktat - H. Windisch)
- 전체 기독교를 향한 선언문 (Manifest - A. Jülicher)
- 복음서의 바른 이해를 위한 독서 보조 자료 (Lesehilfe - R. E. Brown)

결론: 요한1서는 특정한 서식의 '신학적 담론(Diskur)'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의 극심한 논쟁이라는 구체적 위기 속에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 작성된 호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생명의 말씀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인사

-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 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으로다
-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삼서 인사

-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복음
이 책을 기록한 목적
20장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2)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양을 먹이라
21장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2)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일서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2)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3)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이서
끝 인사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지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1)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삼서
끝 인사

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5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구조적 특징: 교리와 윤리의 분리할 수 없는 역임

요한1서의 구조적 특징은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실천'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첫 번째 역임 (1:5-2:27):
하나님과의 사귄과 빛 가운데 행함
(죄로부터의 자유, 거짓 가르침 경고)

세 번째 역임 (4:7-5:12):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진리와 거짓의 구분)

신앙의 내용
(Content of Faith - Doctrine)

서문 (1:1-4):
생명의 말씀

신앙의 실천
(Practice of Faith - Ethics)

두 번째 역임 (2:28-4:6):
주의 오심과 계명
(믿음과 형제 사랑, 적그리스도 경비)

결론 (5:13-21):
영생의 확신과 기도

저자의 한결같은 서술 방식: 교리와 삶(윤리)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서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학적 통일성 논쟁: 파편인가, 하나의 작품인가?

볼트만의 원자료설 (Source Theory)



이교 영지주의 26개 대립명제

- 주장: 저자가 이교 영지주의적 자료(2행시 형식의 26개 대립명제)를 편집하여 작성.
- 5:14-21(죄 문제 등)은 후대의 이차적 첨가물로 간주.
- 비판: 동일한 구조의 평행본문에서 원자료를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법론적으로 의심받음.

문학적 통일성 (Literary Unity) - 현재 주류 학계



5:14-21

- 반론: 편지 본문의 유일회적 언급들이 이차적 첨가를 증명하지 못함.
- 5:14-21의 '사망에 이르는 죄' 단락은 이전 진술과 모순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은 요한 학파 내부의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호소적인 해결책이며, 전체의 통일성을 지님.

저자 탐구 I: 익명의 ‘우리’ vs 권위적 ‘장로’

분석 기준 (Dimension)	요한1서 (1 John)	요한2서 / 요한3서 (2 & 3 John)
발신자 명칭	익명의 ‘우리’ (서문)	권위를 지닌 존경의 칭호 ‘장로’
문학 형식	편지의 외적 특징 완전 결여	전형적인 고대 개인 서신의 형식
사랑의 계명	‘처음부터’ 있던 옛 계명이자 ‘새 계명’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 (새 계명 부인)
적그리스도 표상	단수형과 복수형(‘적그리스도들’) 혼용	단수형 (‘미혹하는 자’)
고유 어휘	(이원론적 대비 강렬)	종이, 먹, 펜, 선/악을 행하다 등 고유어

요한 학파의 공통된 ‘사회 언어(Sozialekt)’를 공유한다. 언어의 독자성과 형식에서 구분되나 우리, 장로가 사도요한으로 부터 전해 받은 말씀이다. 저자는 **사도 요한** 이다.

저자 탐구 II: 요한1서와 요한복음서의 관계

분석 기준 (Dimension)	요한1서 (1 John)	요한복음 (Gospel of John)
핵심 신학 어휘	적그리스도, 화목제물(hilasmos), 기름부음(chrisma)	영광, 율법, 은혜, 심판하다, 구원하다
보혜사 (Paraclete)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 동일시 (2:1)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다른 보혜사')
종말론의 무게 중심	미래적 종말론이 우세 (주의 강림과 심판 대망)	현재적 종말론이 압도적 지배
교회의 상황	가현설 이단에 의한 심각한 내부 분열과 투쟁	예민한 교리적 갈등과 분열의 흔적 부재

신학적 강조점이 다른 것(무게 중심의 이동)은 교회의 역사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모두 요한교회의 장로의 위치, 인도자이자 말씀을 전해 준 사도 요한의 가르침 아래 기록되었다.

형성 배경: 에베소의 요한 공동체와 기록 시기



- 요한 공동체(요한 학파)의 중심지로, 소아시아 교회의 신학적 격전지.

주후 95년 경

- 요한1서 기록 추정 시기.
- 역사적 증언자들:
 - 파피아스(Papias): 요한1서를 인지하고 있었음 (유세비우스 교회사).
 - 폴리카르포스 (Polycarp): 그의 빌립보서(7:2)에서 요한1서 4:2를 최초로 인용 및 증언.

기록 선후 관계 논쟁:

- 전통적 견해: 요한복음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쓰인 목회서신.
- 학자 일부: 첨예한 이단 논쟁의 긴급성을 볼 때, 요한복음 최종 편집보다 앞섰거나 병행 되었을 가능성 존재. 편지 내 요한복음 직접 인용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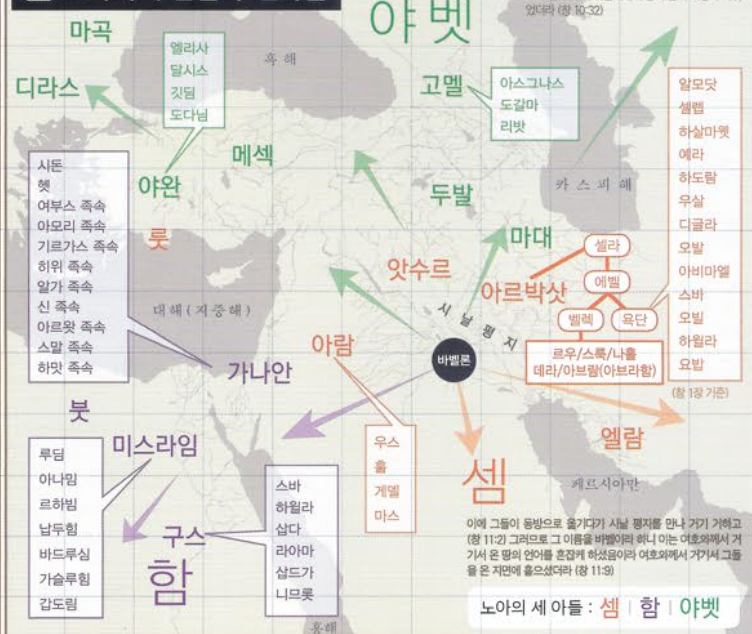
1 고대근동 중동지역 ~ 2세기(전체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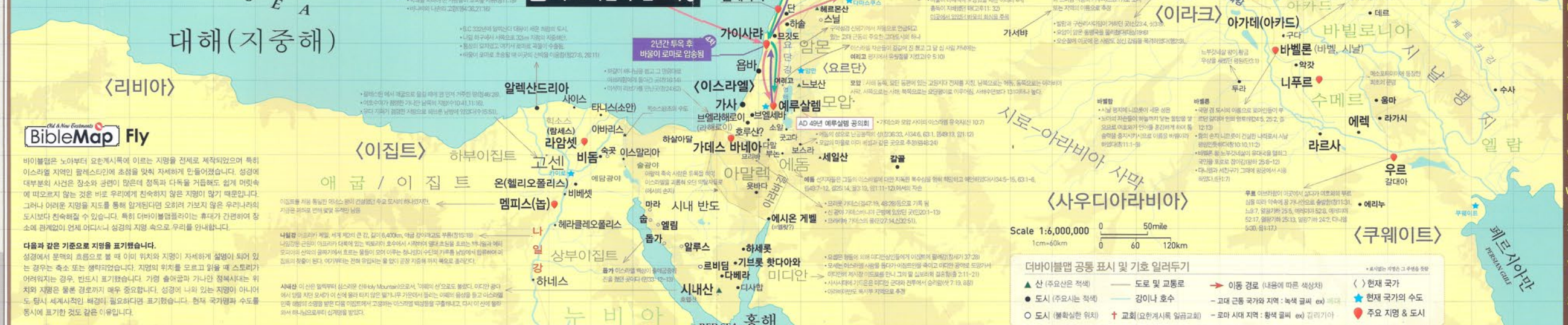
2 팔레스타인 남·북부 지형단면도



3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들



4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위협 of 정체 1: 가현설 (Doketismus) 대적자들과의 논쟁

- '마치 ~인 것처럼 보인다' (헬라어 to dokein)에서 유래.
- 지상의 예수와 하늘의 그리스도를 **엄격히 분리**.
- **성육신 부인**: 구원자는 단지 가상의 몸만 입었다고 주장.
- **수난과 부활 부인**: 십자가의 속죄와 육체의 부활이 지니는 구원론적 의미를 완전히 박탈 (이그나티우스, 폴리카르포스의 대적자들과 동일).

- 1 John 4:2: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피**(대속적 죽음)야말로 구원의 절대적 핵심임을 강력히 변증.

가현설
(Doketismus)
이단의 시각



요한1서의
정통 신앙



위협의 정체 2: 교회 내 분열과 형제 사랑의 부재

이탈과 상처

- 요일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 거짓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적 논쟁을 넘어 교회의 실제적인 분열(Schism)을 초래함.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 요일 3: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 당시 요한 학파 내부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계층 차별이 존재했음을 시사.
- 영적인 자의식에 빠진 이탈자들에게 맞서, ‘구체적인 물질적 나눔이 수반되는 형제 사랑’을 참된 신앙의 시금석으로 제시.

요한1서의 방어 기둥: 진리와 사랑의 결합

생명의 사귄 (Fellowship of Life - 1:3)

- 교리적 위기(가현설)에 대한 응답

- 역사적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며,
육체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다.”

진리
(Truth)

- 사회적 위기(분열과 이기주의)에 대한 응답

- 눈에 보이는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자기 내어줌을 실천하는 것.

-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하다.”

사랑
(Love)

요한1서의 위대한 종합: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진리)은 오직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결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안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1서 5:13)

- 요한1서는 단순한 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 진리를 해체하려는 이단(가현설)과, 형제를 외면하는 이기주의로 인해 붕괴될 위기에 처했던 초기 교회를 지켜낸 강력한 ‘영적 무기’였습니다.
-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형제에게 실천하고 있는가?

